

“내년 보험산업,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가 관건”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제

완만한 금리하락, 수익성 부담
자본·부채관리 등 경영효율 핵심
IFRS17 이후 지출구조 점검 필요
안철경 원장 “산업 재균형 절실”

“보험산업의 과제는 위기를 넘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21일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AI·고령사회·지속가능성·생산적 금융의 흐름 속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원장은 “성과와 안정, 혁신과 신뢰, 효율과 포용이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한 토대가 마련된다”며 “‘궁극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변화와 순응의 지혜를 압축한 표현) 처럼 지금은 산업의 균형점을 다시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2026년을 ‘저성장 속 수익성 부담이 본격화되는 해’로 규정했다. 완만한 금리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수익성·건전성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의 본격화, 완만한 금리 인하(하락폭 제한), 환율 안정 등 거시 변수의 복합영향을 짚고 보험료 2.3%(생보 1.0%, 손보 3.5%) 상승 전망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을 제시했다. 생보는 저축성·변액보험 축소 속 보장성 중심, 손보는 장기손보 둔화와 자동차 저성장 지속이 성장률을 제한하는 구조다. 총 시장은 약 265조원으로 추산됐다.

초회보험료 흐름도 병행 제시했다. 2026년 산업 초회보험료는 전년 대비 -0.7%로 전망됐다. 생보는 저축성 신규 판매 둔화로 -0.9%, 반면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질병·상해 중심으로 4.8%가 예상됐다. IFRS17(보험 회계기준) 이후 보장성 집중이 심화됐고 자동치는 보험료 인하 누적·비용 상승 영향으로 손해를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수익성과 건전성의 압력 포인트도 제

시했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율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생보 3.7%→-0.6%, 손보 7.0%→2.1%로 둔화가 불가피하다. 금리 100bp 하락 시 K-ICS(지급여력비율)가 생보 평균 12.5% p·손보 9.1%p 하락하는 민감도 확대가 확인됐다. 완만한 금리 하락 국면일수록 요구자본 관리가 핵심이란 평가다.

황인창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건전성, 수익성, 성장성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전성과 수익성 저하는 위험보장역량과 미래대응역력을 감소시켜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노건업 금융제도연구실장은 경영 3

대 과제로 ▲적극적 부채관리 ▲자산운용 고도화 ▲비용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적극적 부채관리로 상품 개발·판매 단계부터 자본부담을 내재화하고 보유 계약은 회사 간 계약이전을 통해 건전성·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이다. 감독법규에 근거해 이전 심사 기준·제한 요건도 짚어 비핵심 포트폴리오 재편의 실무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운용 고도화로 자산집약적 재보험(AIR)과 파생상품을 병행해 ‘자본관리+수익률’ 제고를 제안했다. AIR은 역외재보험사를 활용해 K-ICS관리와 수익률을 동시에 노릴 수 있고 파생상품은 금리 위험 헤지와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목적에서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CSM 확보 유인으로 사업비 집행이 커진 만큼 대면채널 중심 지출 구조와 기타사업비 비중을 점검해 지출 합리화 추진을 강조했다. 과도한 설계사·GA 수수료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규율 강화도 주문했다.

노건업 금융제도연구실장은 “보험사 간 계약이전을 활용해 재무건전성 개선, 리스크 분산, 운영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영업 효율성과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토스뱅크

예비부모 아이미래 준비
최고 연 5.0% 태아적금

토스뱅크는 21일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를 위한 ‘태아적금’을 출시했다.

‘태아적금’은 임신 단계부터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출산 후 자녀 명의의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최고 연 5.0%(세전)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1.0%, 우대금리는 연 4.0%포인트(p)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임신헌인서 등)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태아적금 만기 전일까지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태아적금은 부모 한 명만 가입 및 저축할 수 있으며, 초대된 가족 구성원은 임신 주차별 안내와 성장 그래픽 등 아이의 발달 과정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태아적금과 아이통장을 동일한 보호자가 개설해야 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서류 준비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아이의 첫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화손해보험

여성 운전자 복귀 응원
면허정비소 캠페인 진행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1월 9일까지 면허는 있으나 각기 다른 이유로 운전하지 않는 여성 운전자의 운전 복귀를 응원하고 재도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면허정비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러 환경 및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운전대와 멀어진 여성들이 많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 한화손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시작과 도전을 꾸준히 응원해온 만큼 최근 캐롯손보와의 합병을 계기로 여성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 는 취지다.

캠페인 지원 대상은 ▲육아로 인해 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여성 ▲커리어 확장을 위해 운전을 하고 싶은 여성 ▲여가와 아동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여성 ▲사고 트라우마로 운전을 중단했던 여성 등 운전을 다시 하고 싶거나 면허 취득 후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이다. 사연은 본인뿐 아니라 이들을 응원하는 가족·친구·지인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유진 한화손보 마케팅실 팀장은 “이번 캠페인은 캐롯 합병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화손보의 브랜드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과 웰니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1.7조 적자’ 새마을금고 회장 선거, 건전성 관리가 ‘жат대’

부실 정리 vs 변화, 선택의 기로

김인 회장 재선도전 여부도 주목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회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차기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 능력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14일 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17일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은 11월 4일로, 이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투표권자로 참여한다.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연

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박차훈 전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제19대 회장직에 올랐다.

본래 회장직의 임기는 4년이나 보궐선거 시행으로 박 전 회장의 잔여 임기 2년을 부여받았다. 회장직을 수행한 기간이 짧은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 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김 회장은 당선 직후 ‘공약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중앙회 이사 3인과 금고이사장 10인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회장 공약 이행 계획을 심의 및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올해 상반기 3조 8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가 하면, 새마

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부실채권 정리 업무 역시 본격화했다. 또, 이달에는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도 발족했다.

업계에선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실적 악화 및 건전성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약 1조 7382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역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역시 각각 1.74%포인트(p), 0.43%p씩 상승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실 금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획기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제20대 새마을금고 회장직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건전성

관리 리더십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자산건전성 관리·감독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현재 하마평에는 김인 회장 외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유재춘 서울축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때에도 후보로 등록해 현 김인 회장과 함께 선거 레이스를 치른 경험이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서울 잠원동 ‘나홀로 5곳’ 뭉친다… 통합 재건축 시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나홀로’ 아파트 단지 5곳이 통합재건축 추진을 검토 중이다. 당초 리모델링을 논의했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데다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다.

여러 단지를 통합할 경우 갈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인근에서 통합 재건축으로 오히려 속도를 내

고 있고, 일명 ‘재건축의 신’이라 불리는 한형기 전 조합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한 전 조합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김스빌리지·한신타워·중앙하이츠(A, B)·블루힐하우스 등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열린 통합 정비사업 설명회에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단독 추진은 과도한 부담금과 사업 후 가격 약세, 인허가 난해 등 많은

악조건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통합 재건축시 700세대 이상, 최고 49층에 한강조망도 가능해 최소 평당 1억 6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조합장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과 래미안 원베일리 부조합장을 지냈다. 특히 원베일리의 경우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 우정에셋, 신반포

23차, 강남상가 등 5곳을 통합해 진행했지만 재건축으로는 최단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설립 후 7년 11개월 만에 입주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평당 2억원 안팎의 국내 최고가 아파트다.

김스빌리지·한신타워·중앙하이츠(A, B)·블루힐하우스 5개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잠원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입지는 좋지만 모두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만큼 용적률이 높고, 단지 규모가 1~2개 동으로 적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